

2050
여성살이

내 주변에 “깨달은” 남자들이 늘어난다.

이 깨달음은 대개 40대 중반 뒤에 온다. 그건 “여자들처럼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전반부를 남자다운 남자로 살아온 그들, 조직에 몸을 던져 일했고 술 많이 마셨고 온 세상을 소다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넓은 인맥 구축에 매진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의 눈에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폭이 좁고 얇아 보인다. 모여 앉아 술도 별로 마시질 않으면서 여성들은 왜 그리 많이 웃어대며 그들의 이야깃거리는 끊이지 않는지. 그건 거의 미스터리로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인정한다. 여성들이 웬지 더 신나게 살고 있다는 걸.

‘온전한 남자’로 살아온 이들일수록 잘 안다. 사회생활로 형성한 네트워크의 80%는 이해관계의 점철일 뿐이며 퇴직 뒤까지 지속되는 인간관계는 그 나머지 20%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일 따름이라는 걸 말이다. 한때 줄기차게 울려대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도 특정 직책을 떠남과 동시에 찾아든다. ‘인생무상’이란 사자성어와 급진해지는 시점이다. 오, 남성살이의 팍팍함 이어!

이제 그들은 여성들의 방식에 눈을 돌린다. 평소 우습게 봤던, 가늘고 길게 가는 우정이나

여성살이 즐거움에 눈뜬 남성들

쁘지 않아 보인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세 시간씩 이야기를 이어가는 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그들은 한때 경악했다. 이제는 슬그머니 의심해 본다. 남성들의 음주 문화란 혹시 술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도무지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낼 수 없는 남성들의 소심함과 능력 부족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내들의 모임에 따라나서게 된다. 아내의 학연이나 아이 과외팀 중심으로 형성된 엄마들의 모임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점이다. 아내의 친구들과 친해진다. 따뜻하다. 즐겁다. 그리고 환영 받는다.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 하나, 여성들은 밥을 훨씬 더 맛있게 먹는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과 나물에 생선국이 갖는 한국식 한 끼 밥을 짓는 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고로운 공경임이 밝혀진 터.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 감동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녀들은 또 자주 집에서 구운 쿠키나 멸치볶음을 물물교환한다. 에센스 워터 스프레이나 각질 제거 크림 같은 사소한 선물을 나누며 좋아라 날뛰는 그녀들. 야심을 품지 않으니 평생이 즐겁다.

단순한 뇌 구조, 이제 보니 기쁨의 자가 발전소랄까. 남성살이 후반부, 여성살이 방식에서 배우려는 남성들이 늘어난다. 지혜로운 남성들이다. 박어진/칼럼니스트



증 완

없다. 글루코는 것으로 알람들을 대상 자료는 많지 소화불량이 수도 있다. 을 받는 것이 국에서 글루이 돼, 직접 약 보다 절반이 로 보통 관절

문제

효과'

택도

이 않는다. 무 운동도 꼭 필 에게 얻을 필

이서 관리해야 질환이 크게 이하는 방법에 쏟아져 나온 지만 종종 돈 없는 것들도 에 대한 지식 기 힘든 사실 와 상담을 통 는 관리법을

티스내과 교수

은 것이라고 치

0.9%가 항암 현 이 역시 미 것으로 나타

12월호에

스 완화의료 자일수록 말 는 경우가 많 완화의료는 과가 없는 치 같은 증상을 기도록 하는



‘여성노동’ 창간하는 문강분 회장

“여성노동 담론 장 마련
생활 속 노동권 넓힐 것”

“한국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는 결코 낮지 않아요.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실질적 지위가 현격히 낮다는 겁니다.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담론을 담아낼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강분(42)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은 오는 봄 창간될 계간지 〈여성노동〉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정기적으로 생산해내겠다는 포부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2001년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여성 공인노무사들이 모여 여성 노동자를 위한 무료 상담활동을 해 온 전문가 단체다.

문 회장은 “명문법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이라며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잘 녹여 내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운동이 입법운동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간접차별까지 모두 법으로만 담아내려 하다 보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만 자꾸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노동 담론을 활발하게 펼치고, 사법투쟁을 통해 해석에 진전을 담아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회장은 1980년대 말 학생운동을 하면서 “남들 다 그랬듯이” 공장에 들어갔다가 여성노동운동에 눈을 뜬 경우다. 현장 경험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계급문제보다도 성적 질곡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의 목표는 취약한 영세사업장까지 성희롱을 포함한 사전 예방교육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출산 파업’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성들이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안한 고용구조라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성과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자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여성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어야죠.”

글·사진 정유경 기자

퇴직 남성들 '집이 편하지 않다'

중년기 퇴직 남성의 가정 부적응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중년기 퇴직 남성 부부의 성역할 변화와 성평등 실현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중년 남성들은 퇴직 뒤 경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연구위원이 40살 이상 65살 미만의 퇴직을 경험한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퇴직 뒤 부부 사이의 불화가 자주 혹은 종종 발생한다는 응답이 퇴직 전 10.3%에서 퇴직 당시 15.5%로 늘었으며, 조사 시점에는 28.2%까지 증가했다. 변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이 줄어 직장생활에 나선 부인과의 성역

여성정책연 '성역할 변화' 보고서

경제적 불안에다 가정내 지위 위축
아내들 취업으로 역할분담 갈등
남편들, 성역할 고정관념 벗어나야

할 분담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돈 벌어서 주는 아버지'로 고정된 가정 내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연구자인 이미정 연구위원은 "중년남성들의 가정 내 부적응 사례를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며 "일과 가정, 개인의 취미를 병행하는 요즈음의 젊은 남성들과 달리 40~50대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하는 인간'으로만 규정해 와 퇴직 뒤에 넉넉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모르겠다는 남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퇴직한 뒤 부인은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직접 취직할 길을 찾는다. 남편이 첫 직장에 있을 때 부인이 전업주부인 비율은 62.3%였지만 퇴직 뒤 조사 시점에는 39.7%로 줄어들었다. 또 서비스 직종과 판매업 종사자의 수는 14.3%에서 27.3%,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부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직이 쉬운 서비스에 진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관계가 역전되면서 가정에서의 역학 구도도 깨진다. "직장 생활 할 때는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보너스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내가 말한 대로 80%는 따르고 가족적인 불화가 별로 없었는데 자기도 이제 생활에 나와 있고 하니가기가 세진 거예요. 돈도 만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번다, 그러니까 요즘엔 내가 말하면 들은 척만 하고 너무나 변했어요."(○○식품 퇴직자·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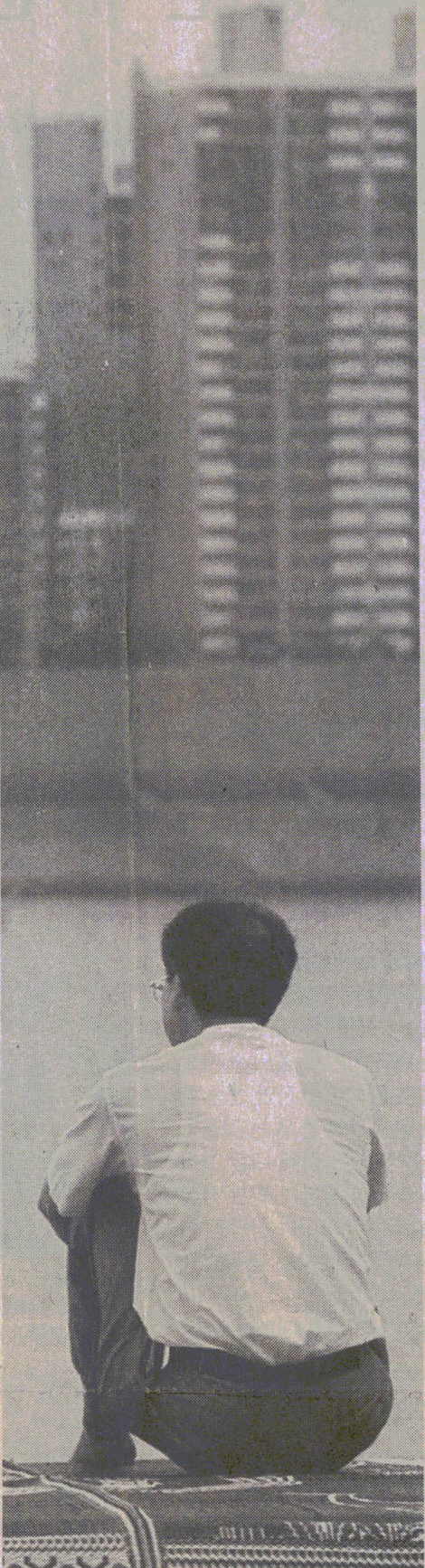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내의 부재로 겪는 식사 문제다. 남편은 끼니 준비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부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는 반면, 아내는 직장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는데도 남편이 배려해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가면서 서로 생각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청소기나 세탁기를 한번 돌려준 다거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오면 그 점이 속상하지."(○○자기 퇴직자의 부인·54)

이 연구위원은 "40~50대 중산층의 경우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집안일을 하는 성역할에 익숙해져 있어 퇴직 뒤 갈등이 커진다"며 "이런 고정적인 성역할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성역할에 변화가 왔음을 주지하고 △가족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히 알리며 △부인이 식사시간에 없어도 가사일을 담당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추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신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지원책이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중년 남성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중년 퇴직남성은 가족들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노여워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해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다.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계 쏙지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자해행동치료센터는 12일 낮 1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발달장애어린이 자해행동 치료 사례와 '부모교실' 발표회를 연다. 발달장애 아동과 자폐 아동의 부모에게 문제행동의 예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참가비 1만원. (02) 570-8000.

●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박인혜)은 2008년도 '여성수첩'을 발간하고, '여성수첩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포털사이트(happylog.naver.com/hotline26) 등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선배 여성들의 멘토 이야기가 담긴 '2008 여성수첩'을

나눠줄 예정이다. 하나는 388-810010-03404(예금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서울와이더블유시에이(회장 김형)는 글을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청국민학교의 2008년 신입생을 1월 한 달간 선착순 모집한다. 초등학교 과정을 3년에 걸쳐 주5회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며, 컴퓨터 무료 강의도 있다. (02)875-4422~6.